

# 새정치, ‘재보선 전패’ 원인 평가작업 착수

최고위, 내분 확산 자제령... 전략기획 기능 강화 추진

오늘 원내대표 경선 결과 따라 ‘뇌관’ 다시 터질 수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29 재보선 전패 원인에 대한 평가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재보선 패배에는 전략 부재도 한 몫했다는 자성에서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전략기획 기능 강화도 추진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철저한 패인 분석을 위해 조만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FG(표적집단 심층면접) 및 현장 조사 방식 등도 가미하기로 했다.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차원의 평가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시작하고 새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는 대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호남 지역 의원들의 민심 평가와 실제 호남 민심은 상당히 다르다”며 “여전히 새정치연합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줬다”고 전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당이 언제 인제영입을 제대로 한 적

이 있는가” “진보적 정당이 오히려 보수적 정당보다 변화를 못 하고 참신한 인재 발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에서 이는 아권재편론을 ‘호남 자민련’ 식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호남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기존의 당 전략기획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는 포석에 따른 것이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계적 전략기획 역량 확립을 위해 전략기획부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형태가 될지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되 맨파워를 대폭 보강하는 식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당내 전략통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가용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와 맞물려 ‘유능한 경제성장 추진위’, 인재영입위, 홍보위 등 그동안 재보선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인선작업도 서두르며 대대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조직개편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런 가운데 구 민주계 출신 등 일부 비노 원외 인사들로 이뤄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권교체를 염원하는 당원연대’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 패배는 현 지도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 대부분의 당원이 우려와 불안을 넘어 당 해체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며 “신당에 갈 필요가 없고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지도부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안철수가 움직이나

손, ‘강진 칩거’ 중 서울 구기동에 새 거처 마련

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당론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선 패배로 문재인 대표의 대권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서울에 새 거처를 마련하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현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7·30 수원 팔달 보궐선거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 강진에 흡입돼 집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최근 서울에 새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고문 측은 지난 2011년 4·27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 마련한 뒤 처분하지 않았던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이 당 해체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며 “신당에 갈 필요가 없고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지도부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 들어가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수속이 필요하다면 빨리 메스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시민사회·전문가·공직연금주체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로선 4·29 재보선 전패로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위축된 가운데 현안에 본격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공간을 넓혀 가려는 포석도 읽혀진다. 합의안의 ‘최중 서명자’인 문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차원도 엿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천정배, 이희호 여사 예방 “야권분열·신당 생각 없다”

“뉴 DJ들과 함께 튼튼한 야권, 전국적 개혁정당 표방”

이 여사, 동교동계에 “정권교체 위해 당 잘 수습해달라”

4·29 광주 서울 보궐선거에서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꺾고 ‘돌풍’을 몰고 온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예방에서 자신이 김대중 정신을 잇는 ‘적자’임을 은연중 강조했다. 또 자신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야권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 야권내 경쟁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천 의원은 변호사 생활을 하던 1996년 김 전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정계에 입문한 인연이 있다. 동교동의 이 여사 자택에서 30여분간 진행된 이번 예방에서 천 의원은 “신당을 만들 생각이나 분열을 일으킬 생각은 없다. 야권을 개혁하고 싶은 것”이라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권이 어떻게든 재구성되고, 전면쇄신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출마한 것”이라며 “그 과정의 하나로 내년 총선에 ‘뉴 DJ’들을 모아 전당정치를 경쟁구도로 만들면 야권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정치결사체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 김 전 대통령 계승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천 의원은 “지역정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반야당을 만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6일 서울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이희호 여사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혜자 “상록회관 부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시당위원장은 6일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상록회관 부지는 그동안 도심의 허파로써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548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생활체육 시설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심각한 이 일대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녹지 훼손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



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이제라도 매각절차를 재검토하고 해고토보를 받은 상록회관 내 비정규직 및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고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주홍 “해수부, 세월호 선체 활용방안 마련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6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후 활용방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밝혔다. 황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사회연구기관 등을 통해 해외사례 조사 등 세월호 선체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선체 전시 등 사후 활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월호 선체 전시’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생명의 땅에서 부치는 치유와 소망의 편지’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통해 처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추모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체 전시를 비롯해 해양구조 전문가 훈련센터, 육해상 안전 체험시설 건립도 건의했다. 황 의원은 “이름의 역사를 가까이 두고 되새겨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양과 추모당 조성을 서두르되 관련 지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조)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세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속/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 세일신용정보(주)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 / 1899-3975

## 에너지밸리 Start-Up기업 R&D과제 공모

한전에서는 Smart Grid 및 ESS, DC배전 등 전력 신기술분야 Start-Up기업 육성하고, 기술기반 전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Start-Up기업 R&D과제’를 공모하오니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7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1. Start-Up기업 R&D과제 개요
  - Start-Up기업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연구비의 85%까지 최대 2.5억원 지원
  - 기업은 15%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개발기간 : 최대 1년 6개월
  - 과제분류 (지정공모과제) 한전에서 R&D과제 발굴 후 개발기업 공모 (자유공모과제) 개발기업이 R&D과제를 제안(→핵심시과제수용)
  - Start-Up기업 우대사항
    - (간접지원) 원료 예비창업자는 창업등록 및 기업부설연구소(or 연구전담부서) 보유 조건을 유예(과제제안 시 →우리회사와 R&D협약 시)
    - (기술창업) 우대) 신태포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분야 가중치 적용 등
      - 개발비(25점)×1.2, 개발능력(20점)×1.3 (= 최대 11점 가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재무구조(15점) 평가를 제외하여 합산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에너지밸리) 촉진) 기업이 에너지밸리에 소재 시 과제선정 가점(5점) 부여
    -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한전「중소 협력연구개발사업 절차서」에 따름
2. Start-Up기업 R&D 자유공모과제(기업제안) 공모
  - 가. 공모기간 : '15. 5. 7(수) ~ 5. 31(일) [4주간]
  - 나. 신청자격 : 개발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제조 or 연구개발이 있는 Start-Up기업(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연구소 및 대학은 지원대상기업과 공동과제를 발굴하여 제안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주관하되, 연구소 및 대학은 해당 전문분야 위탁연구 수행(규모 : 연구비의 50%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 예비창업자는 과제제안 시 지식재산권 등 신기술을 보유, 단, 창업등록 및 연구소 등의 보유는 과제협약 이전까지 유예
  - 다. 공모 기술분야
    - 한전이 추진하는 전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아래기술의 상용화 제품개발
      - SG, ESS, EV, DC배전 등 전력 신사업분야의 연구개발
      - 송변전, 배전, 전력IT분야 신기자재·핵심부품·최신장비의 연구개발
  - 라. 응모방법 : ‘협력연구개발과제 제안(신청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를 통하여 접수
3. 기타사항
  - 가. 참여제한 : 정부부처, 타 기관 및 한전으로부터 재계중인 기업과 신용불량 기업(대표자, 수행기업, 연구책임자 포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 문의처 : 한전 상생협력처 동반성장팀 061-345-8344